

통일 칼럼

주독미군 철수

미국이 주독 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3만 6천여 명 중 일단 5천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런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과장이 주한미군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이 얽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다양한 압박 카드를 불췌 꺼내든 바 있어 주목된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예고한 대로 미 국방부는 약 5천 명의 주독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여 명, 철수 대상은 전체 병력의 약 14%에 달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미 국방부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결정이 유럽 내 미



정복규
논설위원

군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의 전 세계 주둔 병력 검토 결과에, 주독미군 감축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래서, 흐르무즈 해협 파병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실랑이와 함께,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미국에 대한 발언이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의 조치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

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독일 등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점도 주독미군에 비해 훨씬 강한 제동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 요충지라는 점이다. 제이비어 브라운 주한미군사령관은 뒤집힌 한반도 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보다는 입구나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번 주독미군 감축 조치가 단순한 병력 철수를 넘어, 동맹국을 향한 압박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군사 협조 수준에 따라 미군 배치의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주독미군 감축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동 사태 지원이나 방위비 협상 등 안보 현안과 연계해 주한미군 문제가 언제든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전쟁관함법에 의해서 60일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때 미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휴전 기간은 포함 안 된다는 점, 실제 전투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휴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일수에 포함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설

홈플러스 매장 37곳 영업 잠정 중단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약 두 달 동안 매장 37곳의营业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營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공급 가능한 상품을 나머지 67개 매장에 집중 배치해 주요 매장의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 가운데 △서울 중계, 신내, 면목, 잠실점 △부산 센텀시티, 부산본점, 영도, 서부산점 △대구 상인점 △인천 가좌, 송의, 연수, 송도, 논현점 △경기 김포, 고양, 고양, 포천, 남양주, 경기하남, 부천시, 분당오리, 동수원점 △충남 계룡점 △전북 익산, 김제점 △전남 목포, 순천, 고흥, 구미점 △경남 밀양, 진주, 삼천포, 마산, 진해, 김해점이營業을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7개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은營業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식당 등 외부 매장들은, 대형마트營業 중단과 무관하게 계속營業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해 고객 선택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채권단 요구를 반영해 수정된 회생 계획안을 준비 중"이라며 "점포 운영 효율화, 일부 점포營業 중단 계획, 잔존 사업 부문 M&A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돈 봉투가 더 현실적인 선물이 된 시대

붉은 카네이션의 꽃말은 건강을 바라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어버이날 선물로 카네이션을 원하는 부모님은 많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단연 현금이다. 10명 중 9명이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일반적인 선물은 5%, 건강기능식품과 여행은 각각 2%에 그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들 입장에선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그럼 얼마나 드려야 될까 생각하게 된다.

사실 부모님은 얼마를 드리든 고맙다고 하실 것 같지만, 막상 너무 적게 넣자니 괜히 마음이 쓰인다.

지난해 5월, 한 경제·송금 플랫폼에서 송금이 가장 활발했던 날은 바로 어버이날이었다. 단 하루 동안 303만 건이 넘는 송금이 이뤄졌다.

평균 송금액, 9만 8천 원이었다. 10만 원 안팎의 현금성 선물이 어버이날 대표 선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상징적인 선물보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게 더 중요해진 것이다.

카네이션과 건강식품처럼 의미를 담은 선물도 여전히 좋지만, 체감 만족도만큼은 현금이 앞선다는 반응이다.

카네이션보다 용돈 봉투가 더 현실적인 선물이 된 시대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이것 아닐까. "감사해요." - 올해 어버이날엔 용돈과 함께 평소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꼭 전해보자.

독자제언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

따뜻해야 할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폭언, 협박, 경제적 통제 반복적인 무시와 같은 정서적 학대 역시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은 "참고 살아야 한다", "아이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성과 은밀성에 있습니다. 한번의 폭력은 끝나지 않고 점차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은 불안, 우울,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

입니다. 이웃의 작은 신고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며 외면하기보다,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경찰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임시조치, 접근금지, 상담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침묵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강한 가정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 역시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김은화고창경찰서경무계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봄 행락철,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도로 돼야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야외활동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봄 행락철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유증가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숙취운전 단속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주·야간을 불문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장과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 "집이 가까우니 문제없다"는 인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

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봄철은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과 보행자가 함께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경각심과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숙취가 남아 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한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혜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내 · 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